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제70회 추계대회 보고

제70회 추계대회 실행위원장 츠다 코우이치(관서복지과학대학)

2022년 10월 15일(토)·16일(일) 이틀간, 관서복지과학대학에서 제70회 추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태풍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등에 의해 일부 프로그램을 중지하거나 온라인 개최로 전환해 왔지만, 4년만에 대면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당일은 좋은 날씨 가운데 많은 분들께서 참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대회의 참가등록자 수(해외자유발표자 포함)는 총 585명으로, 그 중 회장에 직접 참가해주신 분은 348명, 온라인 참가자는 287명이었습니다.

한편, 그간의 사회정세 등을 감안하여, 대면형식, 라이브 스트리밍, 온디맨드 스트리밍 등을 융합한 여태껏 일본사회복지학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회 도중에 음성이 들리지 않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제안을 받고 3년이 지나서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장이었던 카네코 코우이치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복지학과의 신진·중견 교수님들께서 ‘도전한다면 지금입니다. 저희들이 활발히 활동중인 지금 부디 도전하세요!’라는 말씀에 힘을 얻어 대회 운영 업무를 맡기로 결심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방지를 위해 1년 연기된 올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대회실행위원회 위원장이신 야마가타 후미하루 교수님, 이와사키 신야 교수님, 이토 카요코 교수님을 비롯해, 실행위원, 학회 이사님, 국제문헌사(國際文獻社)의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대회 첫 날 오전에는, 「사회복지연구/교육에 있어서의 다문화공생~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의 유학생들의 경험과 교육, 지원의 현장에서~」라는 제목으로, 유학생들과 함께 국제비교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개회식 후에는 학회상 수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와타 마사미 명예회원과 나가타 유우 회원이 학술상을, 시 마이(史邁) 회원과 아쿠즈 미키 회원이 장려상(단독 저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회의 테마는 「새로운 일상과 사회복지-「유대」의 미래를 전망하며」입니다. 수많은 재해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등을 계기로 일상과 생활습관이 변화하였고, 이에 맞는 새로운 생활양식의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으며, ‘생활의 일상성’에 대해 재탐색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전문직이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기에, 사람들의 「유대」를 테마로 전문직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것이 본 대회의 취지입니다.

학술대회 개최의 기획으로 진행한 심포지엄에서는 대회의 테마와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면형식 특유의 열기 속에서, 심포지스트(symposist)와 대회장 이 일체화된 듯한 심포지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 이틀째에는, 연구지원위원회에 의한 「연구를 중단하지 않기-다양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스타트업 심포지엄과 「장애x여성-성과 생식을 둘러싸고」를 주제로 한 특정과제 세션, 「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론을 생각하다~평가의 구체적 방법~」을 주제로 한 학회기획 세션, 그리고 구두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포스터 발표는 온라인상에서 진행되었고, 구두발표에서는 총 105건의 연구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체총괄 및 사회 등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던 회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몇 가지 과제가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구두발표·포스터 발표에 대

한 심사(査読)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된 점이 발표자 여러분들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향후 심사의 범위 및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본 대회에서는 종래의 대면형식에 더해, 라이브 스트리밍, 온디맨드 스트리밍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였고, 이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도 이후의 개최방식에 대해 논의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방지 차원에서 정보교류회를 취소하였고 포스터 발표도 온라인으로 진행함에 따라, 회원 간의 교류의 장이나 환담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처럼 오랜만에 대면 형식으로 개최되었지만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참가자분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는 학회원인 학내 실행위원 17명과 비학회원인 사회복지학과 교수 1명 등 총 18명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대회 당일엔 관서복지과학대학 학생들이 스태프로 참여하여 참가자 분들을 정성껏 맞이해 주었고, 쿠가 히로토 회장님의 개회사에서 학생들의 대응에 대해 칭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원 스태프와 학생 스태프가 '다 함께 만들어낸'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협조해주신 학내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학회상 수상을 맞이하여

학회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2022년도 학회상 수상자가 결정되었습니다. 학술상(단독 저서 부문) 수상자로 이와타 마사미 명예회원과 나가타 유우 회원이, 장려상(단독 저서 부문) 수상자로 시 마이(史 邁) 회원과 아쿠츠 미키 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식은 제70회 추계대회 첫 날인 2022년 10월 15일(토)에 관서복지학원대학에서 개최식에 이어 진행되었습니다. 수상식은 라이브 스트리밍 되었으며, 11월 17일(목)까지 시청할 수 있도록 온디맨드 스트리밍을 실시하였습니다(학술대회 개최교 기획 심포지엄 영상 시작 후 약 1시간 후부터 시청가능).

수상자 분들의 수상소감을 전해드립니다.

※이와타 명예회원과 시 회원은 온라인으로 수상식에 참가하였습니다.

■학술상(단독 저서 부문): 이와타 마사미(일본여자대학 명예교수)

수상작: 『생활보호해체론—사회안전망의 재구성』(岩波書店, 2021년 11월 5일 출간)

8월 초쯤, 사무국으로부터 ‘2022년도 학술상을 받으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고 너무 놀라서 그만 ‘잘못 보내신 것 아닌가요?’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춘계대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후기고령자인데다, 2017년에 이미 학술상을 수상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커리어의 막바지를 향해 가는(上がり) 연구자이기도 하고, 신진 연구자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두 번이나 수상하는 건 너무나 죄송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회 규정상 수상에 연령제한이나 횟수제한이 없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해주신 결과라는 말씀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번엔 저 외에도 세 분의 수상자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야~ 역시 일본사회복지학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구나(全世代型)’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제 작품은, 일찍이 의문을 갖고 연구해 온 생활보호제도에 대해, 사회보장 · 사회복지제도의 전체 틀 안에서 ‘고립된 위치(孤立した位置)’를 해명하고자 노력해온 결과물입니다. 생활보호에 대해서는 소위 미즈기와 작전(水際作戦) 등과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나 자립지원에 대한 문제가 클로즈업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상세히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점과 일본복지국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민개보험/개연금’ 제도와의 관계가 거의 논의되어오지 않은 점에 대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생활보호기준과 저소득기준과의 관계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나열한 후, 복수의 사회부조제도로 해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특히 빈곤지원 등에 종사하시는 젊은 분들이 읽기 쉽도록 일반서로서 쉬운 표현을 많이 쓰려고 노력했지만, 제도론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저 스스로도 새로 학습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책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서의 제안점은 후속연구를 진행해 주실 분들에게서 보완/수정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만, 아무래도 연

구라는 것은 연구자의 한정된 시점에서 접근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몇 가지 제도에 걸친 포괄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학술상(단독 저서 부문) 나가타 유우(동지사대학)

수상작: 『포괄적 지원체제의 거버넌스—실천과 정책을 잇는 지방자치복지행정의 전개』(有斐閣, 2021년 10월 15일 간행)

본 대회에서 『포괄적 지원체제의 거버넌스- 실천과 정책을 잇는 지방자치복지행정의 전개』로 학회상(학술상)의 영예를 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사회의 ‘개인화’에 수반하여 표면화된 새로운 생활곤란에 대한 대응을 과제로 설정하고, ‘제도복지 간의 협동’과 ‘제도복지와 지역복지의 협동’이라는 두 종류의 협동을 통해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포괄적 지원체제의 구축 방법을 검토한 결과물입니다. 포괄적 지원체제의 거버넌스란, 다양한 실천 주체들 간의 협동을 통해 정부의 시책을 가공하여 커스터마이징하는 영역을 말하며, 이러한 다양한 협동과정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복지행정에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즉, 거시적 차원의 정책과 미시적 차원의 실천을 잇는 중시적 차원의 영역을, 법률에 근거한 사회복지의 ‘운영’이 아닌 다양한 주체들의 역동적인 협동의 무대로 이해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을 ‘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분석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밝히기 위해, 포괄적 지원체제 구축을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참여관찰을 통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전부터 관여해 온 지방자치단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의 실천가와 연구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지역복지연구의 어려움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복지연구 방법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는 실천학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며 업무에 임하시는 분들의 실천을 겸허한 자세로 배우고, ‘강평(講評)’을 통한 지적과 조언을 과제로 삼아, 이 책에서 언급한 ‘미완성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한 연구와 실천을 계속해서 정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을 정독해주신 심사위원분들과 본 연구를 함께 완성시켜 주신 5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학술적으로 지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려상(단독 저서 부문) 시 마이(史 邁)(칭화대학)

수상작: 『협동모델—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狹間)」를 메우는 새로운 지원전략』(晃洋書房, 2021년 3월 20일 간행)

대학원에 재학하던 시절, 지도교수님이셨던 우즈하시 타카후미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연구’ 보다는 ‘흥미있는 연구’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더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흥미있는’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도시사대학원에서의 7년 간의 유학생생활을 통해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학술적으로 부족하지만 흥미있는 연구를 지향한 제 책이 일본사회복지학회의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흥미있는’이 독자들(특히 저명한 선생님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인정받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제가 생각하는 저의 연구의 흥미있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양한 지식과의 만남입니다. 이 책은 도시샤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논문을 수정·편집한 학술서이지만, 그 내용은 사회복지학 영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학문분야의 지견(知見)과 연구방법을 폭넓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전반부의 이론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복지다원주의이론(사회복지학) 이외에도, 신제도파조직론(조직사회학), 관민협동론(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의 사례검토 부분에서는, 청년지원을 위한 복지지원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서비스·매니지먼트론(경영학)에서 관용적으로 활용되어 온 분석방법을 과감하게 응용하였습니다.

둘째는 새로운 지식의 생산입니다. 지금까지 연구서 및 공문서 등을 보면 ‘협동’이 갖는 단어의 의미가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용되어 왔습니다만, 본서에서는 이러한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隨波逐流), 그 본질에 대해 재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코 프로덕션(co-production)’의 개념을 복지영역의 ‘사각지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응용한 점은, 이 책의 ‘세일즈 포인트(売り)’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난해했던 점은,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와 사회복지서비스 생산활동의 실천현장을 근거로 새로운 이론을 스스로 체계화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본 연구가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구별되는 학문적 독자성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흥미로운 다양한 지식을 접해온 것이 제 연구의 ‘흥미있는’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있는’ 연구를 지향하며 꾸준히 정진하고자 합니다.

■장려상(단독 저서 부문) 아쿠츠 미키(메지로대학)

수상작: 『나의 기록, 가족의 기억—케어 리버(care leaver)와 사회적 돌봄의 미래』
(大空社出版, 2021년 8월 13일 간행)

장려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과분한 영광이며, 긴장되는 마음입니다. 연구활동에 있어서 도움을 주신 분들과 수많은 후보작 가운데 저의 부족한 책을 선정해주신 심사위원회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 책을 소개하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이 책은 아동복지에 관한 기록의 문제점에 착목하였습니다. 기록에 대한 과제들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록관리 및 정보관리에 대해 연구하는 아카이브(archives)학이라는 학문분야에 주축을 두고, 아카이브학의 연구를 시작한 시점부터 사회적 돌봄을 제 연구분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책은 박사과정부터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집약한 것입니다. 많은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며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방문한 시설은 대학원 석사과정 시절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조사를 목적으로 시설을 방문했을 때, 한 직원 분으로부터 ‘연구자는 한 번 와서 본 것만으로 단정을 짓고, 이를 성과로 가져가려고 해서 싫다’라는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던 그때 일을 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직원 분께서 말씀하셨듯, 오랜 기간에 걸쳐 관계를 맺어 왔기에 비로소 보이게 된 부분이 많이 있기에, 그때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자립지원시설 북해도가족학교에 거주하면서 봐왔던 직원들과 아동들과의 대화나 평상시의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성과가 이 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동안 민간의 아동자립지원시설로 운영되어 온 북해도가족학교에서 지내면서 배운 것은 이 책의 구성을 생각함에 있어서 그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받은 지적과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를 마음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연구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監訳

鄭 熙聖 (關東学院大学社会学部現代社会学科准教授)

翻訳

金 湊垣 (一橋大学大学院社会学研究科博士後期課程)

번역 감수

정희성 (관동학원대학 사회학부 현대사회학과 준교수)

번역

김호원 (히토츠바시대학 사회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